‘육상 미래’ 전남체고 배건율, 첫 출전 국제대회 ‘은 2’

아시아 U20육상선수권대회
400m 개인 최고기록 세우며 2위
1600m 혼성 릴레이서도 은메달

단거리 차세대 스타 배건율(전남체고)이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배건율은 5일 경상북도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0회 예천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1600m 혼성 릴레이 결선에서 김정현(대구체고)·이민경(소래고)·신현진(포항시청)과 은메달을 합작했다. 공식기록은 3분28초30.

배건율은 전날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400m 결선에서 46초73으로 2위에 올랐다.

46초73은 종전 개인 최고 47초27을 0.54초나 당긴 기록이다.

경기 뒤 배건율은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해 개인 기록 경신에 집중했는데 은메달을 획득해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스마일 아바카르(카타르)가 46초18로 배건율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는 47초33에 달린 전정안(대만)이었다.

‘고교생 토르’ 박시훈(16·금오고)도 5일 남자 포환던지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포환던지기(6㎏) 결선에서 18m70을 던져 3위를 차지했다.

2007년생인 박시훈은 2004, 2005년생 선배들과 경쟁하면서도 시상대에 섰다.

19m52를 던져 우승한 추우드흐리 시드하스(인도)와 18m85를 던진 2위 아흐마트 지브리네(카타르)는 2005년생이다.

박시훈은 목표로 정한 19m를 넘기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2019년 8월 이성빈이 작성한 한국 고등부 기록 18m63을 7㎝ 경신한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 초등부(3㎏·19m17), 중등부(4㎏·22m53) 기록을 만든 박시훈은 고교 1학년이 된 올해 고등부 기록까지 보유했다.

박시훈은 올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18세 미만 아시아청소년선수권에서는 20m11(5㎏)을 던져 우승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김태희(17·이리공고)도 59m97의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태희는 자신이 지난달 5월 KBS배에서 작성한 58m84를 1m13 경신했다.

최우진(19·한국체대)은 남자 창던지기에서 70m41을 던져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시아U20육상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딴 전남체고 배건율이 태극기를 펼치며 트랙을 돌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

‘근대5종 간판’ 전웅태 혼성계주 우승

2023시즌 월드컵 파이널
김선우와 짝 이뤄 금메달
개인전에선 입상 못해

한국 남녀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2023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마지막 대회에서 혼성계주 우승을 합작했다.

전웅태와 김선우는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UIPM 2023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 경기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사격+육상) 성적을 합산한 총점 1359점을 획득, 크리스토퍼 파테-레베카 카스토디(프랑스·1338점)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 월드컵 개인전에서 4월 2차 대회 은메달, 3차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전웅태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 월드컵 파이널 개인전에선 16위에 그쳤으나 계주에서 아쉬움을 풀었다.

김선우는 3차 대회에서 서창완(전남도청)과 혼성계주 우승을 일군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국제대회 입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은 펜싱, 수영에서 전체 1위, 승마에선 2위에 오르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레이저 런에서 선두로 출발, 무난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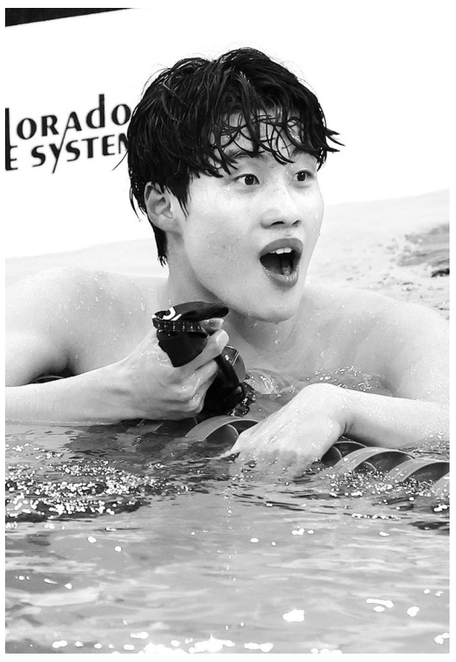
전웅태는 UIPM을 통해 “어제(개인전)는 잘 풀리지 않았으나 오늘은 다른 경기였기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라운드 컨디션이 다소 좋지 않아 러닝 코스에선 조심하면서 했다”며 “선우와 다시 혼성계주 금메달리스트가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우 역시 “개인전 결과가 무척 아쉬웠지만, 혼성계주에서 같이 금메달을 따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한 근대5종 대표팀은 8월 영국 바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수영 간판’ 황선우·김서영 광주서 실전 테스트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앞두고
10일 개막 전국수영선수권 출전
다이빙 김수지도 경기력 점검


황선우

김서영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와 김서영(29·경북도청)이 광주에서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치른다.

대한수영연맹은 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제2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를 연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는 7월 14일에 개막한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선수권을 대비해 2019년 세계선수권을 치른 장소, 광주에서 경기 감각을 키운다.

황선우는 13일 남자 자유형 200m, 14일 자유형 100m에 출전한다.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종목은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자유형 200m다.

하지만, 현역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건재한 데다, 중국 라이징 스타 판잔러가 무섭게 기록을 단축하는 터라 긴장을 늦출 순 없다.

판잔러는 지난달 중국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65의 2023시즌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자유형 200m 국제수영연맹 A기록(1분47초06)을 통과해 황선우와 함께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 출전하는 이호준(대구시청)도 광주에서 경기력을 점검한다.

지난 3월 대표 선발전에서 황선우는 1분45초36, 이호준은 1분45초70에 터치 패드를 찍었다.

김서영은 10일 여자 개인혼영 200m, 13일 접영 100m에 출전한다.

남자 개인혼영 400m 김민석(국군체육부대), 자유형 800m 김우민(강원도청), 접영 50m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도 광주선수권 경영 종목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다.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 다이빙의 유일한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김수지(울산시청)도 광주에서 실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이용료 싼 골프장 ‘탑10’에 전남 3곳

영암·무안·무안클린밸리

국내 골프장 중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골프장 10곳 중 전남권 골프장이 3곳을 차지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토요일 이용료(그린피+카트비+캐디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국내 골프장중 가장 저렴한 골프장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저렴한 골프장 상위 10곳 (Top 10) 중 3곳(사우스링스 영암 CC, 무안CC, 무안클린밸리 CC)이 전남지역에 있는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주중 이용료 기준으로는 사우스링스영암CC(대중형 63홀), 토요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골프존카운티 구미CC가 국내 골프장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곳의 골프장은 캐디가 없이 셀프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으로, 팀당 15만원에 달하는 캐디피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스링스영암CC의 1인당 이용료(짐앵코스 기준)는 지난 5월 기준 주중 14만원, 토요일 17만 5000원으로 수도권 대중골프장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무안 CC는 주중 16만원, 토요일 19만 5000원, 무안클린밸리는 주중 18만원, 토요일 19만 5000원 정도의 이용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다.

수도권 대중골프장의 평균 이용료는 주중 25만 8000원, 토요일 31만 5000원에 달했다.

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골퍼들이 골프비용이 저렴하고 코스가 좋은 대중골프장을 선호하고 있다”며 “노캐디제를 실시하고 있는 4곳이 Top 10에 포함됐는데, 노캐디제가 확산되려면 골퍼들이 투볼 플레이를 자제하고 안전사고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LPGA 신인상 부문 1위 유해란, 숍라이트 클래식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부문 1위 유해란이 9일 개막하는 숍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첫 우승에 도전한다.

3라운드 54홀 대회인 숍라이트 클래식은 9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코스(파71·6190야드)에서 열린다.

유해란은 이번 시즌 신인상 포인트 351점을 얻어 210점의 그레이스 김(호주), 168점의 나타끄리타 웡타위랍(태국)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신인상을 휩쓸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2021년 패티 타와타나낏, 지난해 아타야 티띠꾼 등 태국 선수들이 신인왕으로 등극했다.

올해 그레이스 김이 우승, 웡타위랍은 준우승이 한 번씩 있는 반면 유해란은 최고 성적이 3위 한 차례지만 더 꾸준한 성적을 올려 신인상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중이다. 여기에 우승까지 더하면 아직 시즌 중반이지만 신인상 경쟁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공연
일시 : 2023-06-11(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